

고용·노동법 사업주 처벌 233개…“형사책임 과도”

광주경총, 행정제재 중심 규제 개편 호소 과태료 등 비형사적 대체 ‘비범죄화’ 필요

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2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에도 산재해 사망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처벌 규제의 칼날이 중소기업

에 과도하게 집중돼 비형사적인 행정 제재 중심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나온다.

4일 광주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

25개 법률에 모두 357개의 형벌 조항이 존재하며 이 중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233개(65%)로 조사됐다. 형사처벌 조항이 많은 법률은 사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조법(31개) 순이었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우 72개 형벌 조항 중 68개(94%)가 사업주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고용유관기관법·직업훈련법·장려금법·고용·노동·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 등은 아예 ‘사업주

만’ 형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 책임 구조가 지나치게 사업주 편향적’이라는 지적이다.

광주경총은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형사처벌로 규제해 사용자의 소극적 경영과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형벌은 최후수단이어야 함에도 노동법령에서 형사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의 성격에 따라 행정지도·과태료 등 비형사적 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

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부터 중 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중소기업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광주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안전보건 분야에서도 가장 강력한 형벌 규제를 담고 있는 만큼, 기업은 수동적 준수에서 벗어나 능동적·전략적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과정이 자금 조달, 기업 이미지 상승, 투자 신뢰 확보 와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을 비용이 아닌

미래 투자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중심 규제는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전과자 를 양산하고 투자·고용 의사결정을 위축 시켜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는 만큼 고용·노동 부문도 오래된 규제 구조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고용센터에서 주은혜기업 등 15개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산업안전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고용청, 고용·산업안전 ‘라운드 테이블’

기업지원 서비스 성과 공유…애로 청취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고용센터에서 주은혜기업 등 15개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산업안전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광주노동청에서 올해 3월부터 추진해 온 기업지원 종합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해 인프라·환경 개선 지원 등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

이 같은 성과로 지난달 광주노동청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고용+성장 사례 공모전’에서 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라며 “기업지원종합서비스를 통해 고용 뿐만 아니라 노동·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때 제공,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눈에 띠는 성과는 국민의 제언을 반영해 ‘용역 입찰 참가 자격 확대’다.

승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스타트업 IR 밋업’ 개최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4일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와 ‘스타트업 IR 밋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바이오·친환경·IT 솔루션 등 10개 기업이 해외 투자 유치 멘토링 성과를 기반으로 가지고 IR 피칭을 진행했다.

IR 세션에는 총 10개사의 국내외 벤처 캐피털이 참여해 1대 1 멋업과 투자 검토가 진행됐다. KDB 서남부자본부 및 BNK 벤처투자 등 지역 투자 활성화 펀드 보유 기관도 참여해 향후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대감을 높였다.

행사에 참가한 광주 소재 이터나보타니 카 관계자는 “해외 진출을 앞두고 VC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이 향후 사업 전략과 고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터나보타니는 광주를 대표하는 항노화 건강기능식품 기업으로 현재 말레이시아,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 중이다.

이동원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실질적인 투자 연계와 해외 바이어 매칭을 강화해 지역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광주 SW미래채움 강사연구회’ 전국 최우수상

AI·드론 기반 산불 대응 교육 콘텐츠 경쟁력 입증

(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 SW미래채움사업’ 강사연구회가 전국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EBS가 주관한 ‘SW미래채움 강사연구회’ 경진대회에서 광주지역 강사들로 구성된 ‘광주 소프트 스파클 연구회’가 개발한 교육 콘텐츠의 우수성이 인정받은 데 따른 성과다. 연구회는 지난해를 선발된 이후 약 3개월간 집중적인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진행했으며,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수상작은 ‘드론 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한 교육 콘텐츠다. 연구회는 올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을 계기로 산불의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성을 느끼고 개발에 착수했다. 프로그램은 △AI 기반 산불 위험 지역 분석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탐지 △신속한 진화 전략 시뮬레이션 등 산불 대응 전 과정을 AI·드론 기술과 연계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광주 SW미래채움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고 광주시·광주시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 지역 SW·AI 교육 사업으로, 2023년부터 3년째 운영되고 있다. 우수 강사 양성, 초·중등 대상 AI·SW 교육 제공, 미래채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의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어촌공사, 민생 경제 활성화 앞장

용역 입찰 참가 자격 확대 등 18건 규제개혁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농어촌공사는 4일 올해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공개했다.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로 발굴한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규제 18건을 개선했다.

눈에 띠는 성과는 국민의 제언을 반영해 ‘용역 입찰 참가 자격 확대’다.

승대웅 기자 pose007@gwangnam.co.kr

방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의 입찰 자격을 학술·연구용역 외에 타 업종까지 넓혀달라’라는 안건이 접수됐다.

공사는 제언을 검토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실적 평가 시 유사설작이나 도시계획 실적 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지은행 분야에서도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

농지 입대수탁사업에 대해 농지 소유자가 농업인인 경우 수수료를 기준 5%에서 절반인 2.5%로 인하하고, 위탁면적 660㎡ 이하 소규모 농지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행정 편의도 대폭 높였다.

공사는 공익직불금 담당 기관으로 임대 수탁 계약내역을 전송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신청 이후 별도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근로 사각지대 해소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는 수리시설 감시원의 법적 지원을 명확히 해 산재보험 등 재해보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과 부지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장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개선한 결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HYUNDAI HI-TEC Industry



신뢰와 기술을 토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는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 현대하이텍

1991년에 설립된 현대하이텍은 Mobility Body Maker로 인화단결, 균형성실, 주인의식이라는 사훈과 품질형상, 기술혁신, 신용확대라는 경영방침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현대하이텍은 Global Top Mobility Body Maker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임직원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경영을 추구하여 보다 비전있고 가치있는 회사가 되도록 전진하겠습니다.

(주)현대하이텍 · (주)넥스오토
회장 김용구

고객과의 신뢰 강화와 ESG 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HD (주)현대하이텍
HYUNDAI HI-TEC Industry Co. Ltd.

· 본사/제1공장/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47(오선동) · 제2공장/부연구소: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5번로 81
· TEL: 062-953-2240 · FAX: 062-952-2186 · e-mail: kq24@daum.net · Homepage: www.hdhitec.co.kr